

# 고구려 건국 하늘의 자손, 나라를 세우다

기원전 37년

## 1 개요

고구려 건국의 주도세력은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 집단과 부여계의 남하 집단과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하천과 계곡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나(那)'라고 하는 작은 정치 단위들의 상호 협력과 정복 과정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다.

## 2 고구려의 건국 설화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전하는 건국 설화에 따르면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부여에서 남하한 주몽(朱蒙)이다. 주몽의 아버지는 천제(天帝)의 아들인 해모수(解慕漱)이고, 어머니는 물을 다스리는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라고 전한다. 유화는 부모의 허락 없이 해모수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가 부여의 왕인 금와왕(金蛙王)에게 거두어졌다. 부여 왕궁에 머물게 된 유화의 몸에는 햇빛이 따라 다니며 비추었는데 이 때문에 임신이 되었다. 유화는 얼마 후 사람이 아닌 알을 낳았고, 그 알을 깨고 나온 것이 바로 주몽이다.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쓰고 재주가 뛰어나 부여의 왕자 대소(帶素) 등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하였다.

주몽은 기원전 37년 졸본천(卒本川)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원래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비류국(沸流國)의 송양왕(松讓王)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타고난 재주와 권능으로 제압하였고, 이후 주변국들에 대한 정복 활동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기원전 19년(동명성왕 19) 부여에 남겨 두고 왔던 부인과 함께 아들 유리(類利)가 찾아오자 태자로 임명하였고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는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 3 고구려의 종족적 계통

고구려 건국 설화의 내용은 상당 부분 부여의 건국 설화인 동명 설화를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라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단이 부여의 건국 설화를 차용해 사용했다는 것도 생각하기 힘들다. 부여계 집단이 남하하여 고구려라는 정치 집단을 형성하는 데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고구려 5부 중 '계루부(桂婁部)'가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부명이다. 『삼국지』나 『후한서』에 따르면 다른 부들은 모두 '〇婁部'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루부만은 예외이다. 이를 통해 계루부가 나머지 네 부와는 출자 계통이 다소 달랐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부여계 집단이 대규모로 남하했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吉林) 지역과 고구려 중심지인 압록강 중상류 지역은 무덤 양식이 서로 다른데, 부여에서는 청동기시대에 돌널무덤(石棺墓)을 조성하다가 철기시대에는 움무덤(土壙墓)을 조성하였다. 반면 압록강 중상류에서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 전반까지 돌무지무덤(積石塚)이 주된 무덤 양식이었고, 돌널무덤이나 움무덤은 조성되지는 않았다. 만약 부여계 집단이 대규모로 남하했다면 압록강 중상류에서도 돌널무덤이나 움무덤이 조성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부여 계통 집단의 남하는 오래 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것이었고 토착 집단과의 융합과 동화 현상